

〈溪西野譚系〉에 나타난 倭亂·胡亂에 대한 視覺

김 상 조*

目 次

- I. 序 論
- II. 倭亂에 對한 視覺
- III. 胡亂에 對한 視覺
- IV. 結 論

I. 序 論

「溪西野譚」은 「靑邱野談」, 「東野集輯」과 함께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야담 집 중의 하나다. 이 중에서 「계서야담」은 선행하는 「계서잡록」과 「기문총화」에 일부의 이야기를 가감하여 이루어놓은 것이다. 필자는 이들을 〈溪西野譚系〉(이하 〈계서계〉)로 합칭한 바 있다.¹⁾

〈계서계〉는 다양한 내용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 倭亂과 胡

* 濟州大學校 國語國文學科 敎授

1) 이에 대해서는 줄고 「〈溪西野譚系〉研究」(고려대학교 대학원, 1992.2)를 참고할 것.

亂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기로 한다. 건국 후 200년이라는 일찍이 없었던 장구한 세월을 평화로 누리던 조선에서 왜란과 호란은 엄청난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발생하였으며 「壬辰錄」이나 「林慶業傳」과 같은 장편의 소설이 쓰여지기도 하였다. <계서계>에서도 이 이야기들은 상당량이 수습되어 있다. 그러나 여기에 실려 있는 이야기들은 「임진록」이나 「임경업전」과 같이 단일한 시각에 입각하여 수습된 것이 아니다. 많지 않은 이야기이지만 상반된 견해를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나름대로 倭亂에 대한 당시의 다양한 시각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倭亂에 對한 視覺

<계서계>에 나오는 왜란에 대한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준다. 난의 발생은 運命의인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리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자들은 이를 예견한다. 그러나 이들은 범상하지 않은 능력을 가지고도 예견된 국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깊은 산속으로 숨는 등의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한 예를 보자.

“어떻게 해야 하느냐. 오직 너만을 믿는다.” “천운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는 반드시 네 처의 권속들을 구제할 것이다. 그 때 우리 집안 권속들도 함께 구제하여 나오.”²⁾

東皐의 집안에 皮氏 성의 겸인이 있었는데, 그는 동고에게 그의 무남독녀의 사위를 골라 달라고 부탁을 한다. 동고는 거지 꼴을 한 한 총각을 사위로 골라 주었다. 이 총각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異人으로서 왜란을 예견하고 있었다. 이 점은 동고도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란을 천운으로 받아

2) 東國大 韓國文學研究所 編, 「韓國文獻說話全集」(이하 「전집」으로 약칭함) 권 1, 103면. 何以爲之 專待汝矣 皮孺答曰 天運也 奈何 東皐曰 汝必救濟汝之妻 眷 伊時吾之家眷 同爲救濟

들일뿐 이를 막기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한다. 겨우 죽기 전에 皮壻를 찾아가 자신의 眷屬을 구제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이다.

이 부탁을 받은 피서는 천기를 누설하지 않기 위하여 장사하다가 실패한 것처럼 꾸며 처가와 동고의 집안 식솔들의 재산을 미리 깊은 산속으로 옮겨 놓고 난이 터지자 그들을 데리고 그곳으로 피난한다.

이보다 한 걸음 나가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을 지키는 이야기도 있는데, 柳成龍의 癡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이다. 서애에게 한 숙부가 있었는데, 그는 菽麥을 구분하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그를 바보로 여겼으나, 그는 사실은 바보가 아니라 이인적 능력을 감추고 있는 인물이었다. 임란을 일으키기 전 畫臣 秀吉은 유성룡을 죽이기 위하여 자객을 보냈는데, 이 치숙이 이것을 알고 그를 암자로 유인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하늘의 운수에 정해진 것이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나도 하늘을 거역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내가 살고 있는 곳은 병화가 일어나더라도 내가 있으니 충분히 구제할 수 있다. 왜병이 이곳에 쳐들어 온다면 모두가 살아서 돌아가지 못할 것이다.”

그는 천기를 엿볼 수 있는 능력으로 왜란의 발생을 예견하고 있다. 그러면 서도 그는 천명이라 어쩔 수 없다고 하면서 겨우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하는 이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은 물론 앞에서 살펴본 동고의 피검서 이야기보다는 적극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의 비범한 능력을 고려해볼 때 여전히 소극적이라는 평을 면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처럼 왜란을 운명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알고 있으면서도 천기를 누설하지 않기 위하여 비밀리에 가족의 피난처를 구한다거나 겨우 자신의 고향만을 전란에서 비키게 하는 것은 왜란의 발생이 어쩔 수 없었다는 집권층의 자기합리화이자 섬 오랑캐라고 멸시하여 마지 않았던 왜의 침입에 무력하게 당

3) 「전집」 권1, 241면. 我國兵火 乃是天數所定 難容人力 吾不欲逆天 吾鄉則難兵革之禍 吾在矣 優可救濟 倭兵若躡此境 俱不旋踵矣

하기만 한 데 대한 일종의 自己慰安 意識의 발로다.

〈계서계〉에서 왜란을 넘기는 데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원군을 끌고 왔던 명나라의 장수 이여송으로, 그에 대한 이야기는 3편에 이른다. 『계서야담』 권1의 제27화, 권2의 제5화, 권3의 제16화가 그것이다. 이 중에서 이여송이 왜적과 싸우는 이야기는 권1의 27화 한 편에 불과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이야기나 그와 간접적으로 밖에는 얽히지 않은 이야기라 하더라도 그만큼 이여송이 비중있는 인물로 각인되었던 상황을 반영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는 신출귀몰한 능력을 가지고 평양성을 탈환하고 왜의 자객을 처치하며(권1, 27화) 군기를 엄정히 하면서도 너그러움을 겸한(권2, 5화) 인물로 獵公이나 荊軻보다도 뛰어난 신술을 가진 인물로 기려진다.⁴⁾ 이것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왜란의 극복이 명의 원군이 있어서 가능했다고 하는 사대의식의 표출이다.

주지하다시피 왜란은 이여송과 명의 원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그들보다도 더 헌신적으로 싸운 의병들에 힘입어 극복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계서계〉에서 이들에 대한 이야기는 미미한 감을 준다. 겨우 이인적 능력을 가진 부인의 도움을 얻어 공을 세운 金千鎰 이야기가 한 편 있을 뿐이다(권3 제17화).⁵⁾

그러나 〈계서계〉에는 이러한 지나친 事大意識에 대한 自省도 나타난다. 한 예를 들면 『계서야담』 권3의 제16화가 그것이다. 임란시 명의 구원군을 끌고 조선에 온 재독 이여송은 조선의 산천의 아름다움을 보고 은근히 조선을 차지하고자 하는 야심을 품는다. 어느날 이여송이 練光亭에서 잔치를 하는데 한 노인이 소를 타고 지나간다. 이여송은 무례한 노인을 잡아오라고 한다. 이 노인은 소를 타고 서두르지 않고 갔으나 부하들은 그를 잡지 못한다. 화가 난 재독은 말을 타고 그의 집에까지 쫓아간다. 집에서 그 노인은 그의 행위가 장

4) 『진집』 권1, 73면. 余見 總術自古尚矣 遠公穿壁 通其神 荊軻擲柱 失於疏 皆下於提督之能通術也

5) 엄밀하게 이야기한다면 이 이야기도 김천일의 의병 활동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의 부인의 뛰어난 데 대한 이야기이다. 이밖에도 전사한 김여물과 이경류에 대한 이야기가 있으나, 이것들도 이들의 전훈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김여물의 충복과 이경류의 혼령이 나타난 신이합에 초점이 맞추어진 이야기다.

군을 일부러 유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면서 버릇없는 두 아들을 죽여 달라고 한다. 제독은 칼을 들고 그들에게 덤벼으나 책으로 칼을 막아내는 그들을 당하지 못하고 땀을 흘린다. 이 때 노인이 나타난다.

장군께서 황제의 뜻을 받들어 동쪽으로 원군을 끌고 오셨으니, 섬 도적들을 쓸어내서 우리나라는 다시 蒸業을 확립하고 장군께서는 개선하여 돌아가 시어 죽백에 이름을 남기신다면 어찌 대장부의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두 마음을 먹는다면 이것이 어찌 장군에게 바라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의 일은 장군께 우리나라에도 인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장군께서 위우치시어 마음을 고쳐 먹지 않으시고 어리석은 생각만 하신다면 제가 비록 늙기는 하였으나 장군의 목숨을 거들 수는 있습니다. 각별히 힘써 주십시오. 산야에 사는 사람의 말이 심히 당돌합니다만 장군께서는 잘 살피시어 용서하십시오.”

제독을 집에까지 오게 한 것은 조선에도 인재가 있다는 것을 알려서 불측한 생각을 먹지 못하게 하고자 한 것이었으며 끝내 어리석은 마음을 먹는다면 목숨을 거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말은 부드럽지만 그 내용이 상당히 위압적이다. 목숨을 거들 수도 있다는 말은 이미 그의 초인적인 능력을 알고 있던 이여송에게는 공포감을 주기에 족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이여송은 고개를 떨구고 기운이沮喪되어 그 집을 나온다.⁷⁾ 여기에서 원공이나 형가보다 뛰어나다는 칭송을 받았던 이여송은 형편없이 초라한 모습으로 바뀐다.

「임진록」에도 실려 있는 이 이야기는 명의 원군의 힘으로 임란을 극복하였다고 하면서 과도하게 사대의식에 젖어 있던 풍조에 대한 민중들의 비판이다. 이들은 이름없는 촌부로 살아가면서도 국난이 일어나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6) 「전집」 권1, 251면. 將軍奉旨 東援而來 掃除島寇 使我國再尊蒸業 將軍凱還 歸 名垂竹帛 則豈非大丈夫之事乎 不此之思 返懷二心 此豈所望於將軍者乎 今日之舉 欲使將軍知我東亦有人才之故也 將軍若不悟意改圖而執迷 則吾雖老矣 足可制將軍之命 勉之勉之 山野之人 語甚唐突 惟將軍垂察而怒之

7) 「전집」 권1, 251면. 提督半晌無語 低頭喪氣 仍諾而出門云爾

나라를 집어 삼키려는 이여송의 야욕을 좌절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계서계>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는 소극적이고 퇴영적인 이야기에 비하여 양적으로 대단히 적다.

Ⅲ. 胡亂에 對한 視覺

호란과 관련되는 이야기는 왜란의 그것과 약간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호란은 왜란에 비하여 단기적으로 끝났으나 임금이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의식을 치루었기 때문에 정신적 좌절감은 왜란에 비하여 훨씬 더 컸으며, 피침을 운명적인 것으로 돌리기에는 그 충격이 너무나도 컸다. 그렇기 때문에 호란에 대한 이야기에는 피침이 운명적이었다는 등으로 합리화하는 이야기는 찾아볼 수 없다. 대신 戰前 북쪽 국경을 성공적으로 방어한 朴堧이나 전후의 北伐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주를 이룬다. 특히 박엽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 5편에 이르러 <계서계>에서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는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 이 이야기에서 박엽은 탁월한 능력을 가진 인물로 나타난다.

박엽은 광해군 때의 사람으로 장군의 지략이 있었으며 천문 지리와 기우 술수의 학문에 통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광해군의 동서로 관백이 되어 십년을 교체되지 않고 위엄을 관서에 떨쳤으니 북쪽 오랑캐들이 감히 국경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하루는 막객을 불러 술과 안주를 주면서 “이것을 가지고 증화현의 구현 아래에 가서 기다리면 반드시 어느 두 건장한 사람이 채찍을 가지고 지나갈 것이다. 내 말이라 하면서 인사를 하고 ‘너희들이 우리 나라에 온지가 달포나 되니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행역이 고달픈 것이니 한 번 배불리 먹고 속히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

- 8) 이와 같은 대명 경계의식은 사신들의 행패를 기지로 물리치는 이야기에서도 나타난다. 권1의 26화가 바로 그 예로 여기에서 즉 정충신은 첩의 기지로 턱없는 요구를 하는 중국 사신을 물리치는 내용이다. 이 이야기는 정충신의 첩의 이인적 행위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역시 사대부들의 과도한 사대의식에 대한 경계임이 분명하다.

다.'고 권하라." 하였다. 막객이 그 말대로 권하자 두 사람이 서로 돌아보면서 얼굴빛이 변하여 "우리가 여기까지 오기는 하였지만 어찌 감히 장군을 무시하겠습니까. 장군은 귀신 같은 분이시니 장군이 계시는 동안은 우리가 어찌 감히 함부로 쳐들어 오겠습니까." 하고는 술을 마시고 떠났다."

박엽은 천문 지리 기우 술수에 정통하여 청나라에서 조선 침략의 야욕을 가지고 간첩을 보낸 것을 미리 알고 그들을 타일러 돌아가게 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박엽이 있는 동안은 조선을 침범하지 않겠다고 하며 돌아갔다. 그 두 사람은 용골대와 마부대로 조정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만 박엽 혼자서 알고 있었던 것이다.¹⁰⁾ 그는 또 밤에 金汗의 연무장에서 叢花赤과 결투를 하고 수만기를 불태워 죽이는 등¹¹⁾ 혼자서 北虜의 준동을 잘 막았다.

그는 또한 인조반정을 예견하고 있었다. 그는 막하에 있던 具仁厓가 반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하직 인사를 올릴 때 紅氈 30수레를 준다. 구인후는 이것을 거절하지만 뒷날 쓸 데가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떠맡긴다. 이것은 뒷날 인조반정시 반정군의 군복으로 사용되어 조정의 군사와 반정군이 구별되도록 하였다.¹²⁾ 뿐만 아니라 그는 호환이 든 친지 재상의 아들 운명까지도 바꾼다. 이러한 엄청난 행동에 대하여 운명의 집행자는 박엽에게 천기를 누설하지 않도록 경고할 뿐 아무런 징계도 하지 못한다.¹³⁾ 박엽에 대한 이와 같은 극찬은 〈계서계〉의 철저한 당색의식을 고려할 때 자못 기이한 느낌을 줄 정도다.

9) 「전집」 권1, 314면. 朴曄光海時人也 有將略 天文地理奇耦術數之學 無不通解 以光海同壤 爲關西伯 十年不遑 威行關西 北虜畏之 不敢近邊 一日呼幕客 具酒肴而給曰 持此而往中和駒峴下以對則必有二健夫 執策已而過者矣 以吾之言 致意 曰 汝輩雖往來我國亦有月矣 他人皆不知 吾則已知之矣 行役良苦 爲送酒肴 可一醉飽 而速歸可也云 而傳之 幕客往駒峴而對之 則果有二人之過矣 依其言傳之 則二人相顧 失色而言曰 吾輩雖來此 何敢慢將軍乎 將軍神人也 將軍之世 吾輩何敢輕來乎 仍飲酒而去

10) 위와 같은 곳. 此則龍骨大馬夫也 潛來此國 爲探虛實 而或爲政院臺隸人 皆不知 曄獨知之云耳

11) 앞의 책 권4의 17화

12) 「야담」 권4, 18화

13) 「야담」 권4, 17화

이처럼 훌륭한 장군이었던 그는 그러나 인조반정 후 살해를 당한다.

계해년 삼월 반정 후 박엽은 촛불 아래에서 홀로 서서 칼을 어루만지며 탄식하고 있었다. ……“사또께서는 장차 어찌 하시렵니까?” “네게 물어보자.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소인에게 상 중 하 세가지의 제책이 있습니다. 사또께서는 이 세가지 제책 중에서 고르십시오.” “세가지 제책은 무엇인가?” “사또께서 군사를 일으켜 북쪽으로 금나라와 연계를 맺으시면 임진강 이북은 조정에서 차지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상책이니 아래로 趙佗의 제책을 읽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중책이라 하는가?” “급히 군사 삼만을 일으켜 소인에게 맡겨 북을 울리고 서울로 쳐들어가는 것이니 승패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중책입니다.” “하책은 무엇인가?” “사또께서는 대대로 녹을 먹는 신하이니 순순히 국명을 받는 것입니다.” 엽은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탄식을 하고 말하였다. “나는 하책을 따르겠다.” “그러시면 소인은 이로부터 물러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디론가 떠나갔다.¹⁴⁾

반정 후 박엽은 앞으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심각한 고민을 한다. 이때 막하의 한 사람이 세가지 제책을 내놓고 택일할 것을 권하는데 그중에서 두가지는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것은 반정 후 조정에서 박엽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고심하였던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만약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조정에서는 막을 자신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정 후 조정에서는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아무도 가려 하지 않을 정도로 공포의 대상이었다. 결국 그의 막하에 있었던 具仁壘가 자청하여 가서 교살하였다.¹⁵⁾ 조정의 명을 받아 간 신하가 죄인을 교살을 하였다는 것은 조정의 명

14) 「전집」 권1, 320-321면. 癸亥三月反正後 朴擘獨立燭下 撫劍發歎……曰 使道將何以爲之 曰 試問於汝 將何以爲之 曰 小人有上中下三策 使道收於三策之中 曰 何爲三策 曰 使道舉兵 而反北通金人 則臨津以北 非朝家之有也 此上策也 下不失尉佗之計也 何謂中策 曰 急發兵三萬 使小人將之 鼓行而上京 則勝敗未可知也 此中策也 何謂下策 曰 使道世祿之臣 順愛國命 此不策也 擘默然良久 嘯然曰 吾從下策 曰 小人自此告辭 仍不知去向

15) 「전집」 권1, 320면. 後朴擘受後命 時舉朝皆恐 無人敢下去者 仁壘自請 下去而處絞

령 집행이 아니라 암습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나마도 앞에서 보았듯이 그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대대로 녹을 먹던 신하로서의 직분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받아 들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살아 있는 동안은 조선을 침입하지 않겠다고 했던 청나라에서는 그가 죽자 곧바로 조선 정벌에 나서고, 조선은 청의 침입 앞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끝내는 삼전도의 수치를 겪게 된다.

그러나 반정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것을 운명적인 것으로 설명하는 예도 있다.

엽이 어렸을 때 운수를 보니 ‘千人을 죽이지 않으면 천인이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하였다. 천인은 구인후의 어렸을 적 자인데 엽이 잘못 알고 무고한 사람을 많이 죽여 천 사람의 수를 채웠으니 참으로 한탄스러운 일이다.”¹⁶⁾

박엽이 어려서 운수를 보니 천인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폐가 나와 무고한 사람을 천 명이나 죽였는데, 사실은 구인후의 어렸을 적 字가 천인이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천문 지리와 술수 기우지학에 두루 통달한 박엽이 이를 몰랐다는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결국은 운명의 굴레라고 할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점에서 그의 죽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그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기록자의 태도다. 즉 그는 그와 같이 무고한 사람을 천 명이나 죽이고, 광해군 밑에서 벼슬을 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점괘를 잘못 풀어 죽임을 당한 것이 한스럽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계서계〉의 기록자들이 박엽과 같은 명장을 죽인 데 대한 아쉬움과 그를 죽인 후 있었던 호란을 막지 못한 데 대한 회한의 표출로 보인다. 이것은 〈계서계〉 작자들의 투철한 당색의식을 초월하는 것이었으며,¹⁷⁾ 그렇기

16) 「전집」 권1, 320면. 曄少時推數 則不殺千人 千人殺汝 千人乃具仁 虛少字 而曄誤知 而多殺不辜 以充千人之數 良可歎也

17) 〈계서계〉의 당색의식에 대해서는 김상조, 「〈계서야담계〉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때문에 박엽이 비록 광해조의 복인 정권 하에서 활동을 한 당색이 다른 인물이지만 많은 이야기를 수집하여 수록해 놓은 것이다.

호란이 끝난 후 효종은 삼전도의 수치를 씻자는 명분 하에 복벌을 강하게 주장한다. 그리고 이 복벌론은 호란 직후 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노론 집권층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그러나 복벌은 상하 모두가 처음부터 실현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수직을 하던 한 군사가 밖에서 들어오면서 말하였다. “추위가 이처럼 심하니 어떻게 밤을 세우지.” 한 사람이 말하였다. “오늘 밤을 어떻게 춥다고 하는가. 요동에서 어떻게 노숙을 하려고 춥다고 하는가. 주상께서 방금 복벌에 대하여 의논하셨는데 이런 때 우리가 싸움터에 나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럴 리가 없네.” “일전에 회덕의 송대감께서 들어오셔서 독대하고 이미 방침을 정했다네.” “그런 일은 분명 없을 것이네.” “자네가 어떻게 아는가.” “주상께서 결단력이 없으신데 이런 큰 일을 어떻게 하시겠는가.” “자네는 또 어떻게 아는가.” “주상께서 만약 결단력이 있으셨다면 연전에 왕자로 강화도를 수비할 때 김경징을 어찌 차단하지 않으셨겠는가. 경징 한 사람의 죄도 바로 하지 못하시는데 하물며 상극을? 나는 이로서 안다네.”¹⁸⁾

이것은 효종이 밤에 미행할 하다가 들은 병사들이 주고 받는 말로 복벌론의 허구성을 통렬히 지적하는 것이다.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조선에서는 비빈과 왕자들을 강화도로 피난시키고 임금도 그곳으로 가려 하였으나, 길이 막혀 남한산성으로 들어갔다. 이때 김경징은 강화도 수비대장이었다. 그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었으면서도 강화도의 지세만을 믿고 주색에 빠져 수비를 소홀히 하였다가 강화도가 함락되어 많은 왕자와 비빈들이 포로가 되었다. 뒷날 효종

18) 「전집」 권1, 337-338면. 軍鋪守直一人 自外而入曰 寒威如此 何以經夜 一人曰 今夜何爲以寒乎 其人曰 吾輩何爲而露宿遼東乎 豈可曰寒乎 主上今方議北伐 如此之時 吾輩豈不從征乎 曰 無是理矣 懷德宋相大監日前入來獨對 已定計云矣 其人曰 必不然 曰 汝何以知之 曰 主上無威斷 此等大事 何以辨之乎 曰 汝又何以知之 曰 主上若有剛斷 則年前以王子 守江華時 金慶徵豈不斬 一慶徵尚不得正其罪 何況上國乎 吾是以知之

이 된 봉림대군도 이때 같이 잡혀 끝내 심양까지 끌려가 고초를 당하였다. 병사들은 이때 효종이 강화도에 있으면서 김경정을 죽이지 못한 처사를 두고 결단력이 없어서 북벌을 결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다.¹⁹⁾ 이것은 북벌론의 기만성을 정확하게 지적한 것이라 할 것이다.²⁰⁾

앞에서 보았듯이 북벌의 실패는 예견된 바였다. 따라서 계속하여 북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설명이 요구되었는데, 이것을 〈계서계〉의 작자들은 실현 가능성의 여부보다도 당위적인 것으로 역설하고 있다.

효종조에 우암선생은 일찍이 없었던 대우를 받아 춘추대의를 밝히셨다. 효종께서는 북벌의 일을 선생에게 맡기셨으며, 선생께서는 북벌이 이루어지지 못하리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천하 후세에 대의를 펴고자 했던 것이니 재갈무후가 기산으로 여섯번이나 출정한 것과 같다. 그러나 당시에 이러한 뜻을 헤아리지 못했던 사람들은 때면 우옹의 뜻이 오괄하다고 하였으니 어찌 그들을 꾸짖겠는가.²¹⁾

- 19) 이 이야기는 「삼교만록」에도 실려 있는데, 여기에는 〈계서계〉보다도 더 상세하게 되어 있어 주목을 끈다. 여기에는 효종이 미행을 하다가 동소문에서 만난 떡 파는 노인과의 대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앞 부분은 〈계서계〉와 같은 내용이다. 뒷 부분은 〈계서계〉에는 나오지 않는데, 효종은 그때 김경정을 죽이지 않은 것은 국법에 중실의 정치 관여를 엄금하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이 아니냐고 반문한다. 이에 대한 賣餅叟의 대답은 상당히 긴데, 간단히 요약하면, 그때는 戰時였고 더욱이 임금이나 세자가 그곳에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으며, 설사 범법이 된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상황에서 국가를 온전하게 하고 君父를 편안하게 할 수만 있다면 금법은 사소한 것이라는 것이다(「삼교집」 하, 99-100면). 이것은 앞의 내용을 부연하고 있는 것으로 결단력이 없어서 북벌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말은 상당한 설득력을 갖는다.
- 20) 북벌의 실패를 예견하는 이야기는 이와 같이 이름없는 백성들 사이에서만 운위되지는 않았다. 당색이 달랐기 때문에 단순한 당쟁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鄭太和 至和 형제의 냉소는 그들이 경승의 반열에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북벌의 실패 전망은 폭넓게 받아들여졌던 것이 분명하다(「계서야담」 권5 제47화).
- 21) 「전집」 권1, 425면. 孝廟朝 尤菴先生受不世之遇 明春秋大義 孝廟以北伐之事委之先生 先生非不知北伐事之不濟 而將伸大義於天下後世 如諸葛武侯六出祁山之意 而時輩不諒此意 每以尤翁之意 爲迂闊 顧何足貴乎

북벌책의 추진은 이것이 실패하리라는 것을 몰라서가 아니라 천하후세에 대의를 펴고자 하였던 것으로, 전후 6차에 걸친 제갈량의 기산 출정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은 <계서계> 작자들의 철저한 당색적인 입장의 반영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그만큼 북벌론은 확고부동한 것이었다. 조선 후기 집권 노론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 주장은 그러나 앞에서 보았듯이 집권 세력 스스로도 그 실패를 예견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북벌론의 허구성의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허구성과 표리 관계에 있는 것이 북벌의 실패가 운명적이었다고 하는 것이다. 그 한 예가 효종의 단명이다. 명나라 유민 한 사람이 승복 차림으로 조선에 와서 宋時烈과 申生을 만나보고 북벌책에 커다란 기대를 걸었으나 露浦에서 열병을 하는 효종을 보고는 조용한 곳에 가서 대성통곡을 하였다. 상좌승이 까닭을 묻자 그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나의 한 조각苦心이 이제 끝났구나. 내가 보니 主上の 하늘의 해와 같은 표상은 영결스럽고 뛰어난 임금이라 하겠으니 큰 일을 하실 만하다. 그러나 屍氣가 얼굴에 가득하시니 壽命이 금년 안에 다하실 것이다. 하늘이여, 하늘이여! 이미 사람을 내시고 또 어찌하여 빨리 그를 데려가시나이까?” 하면서 애통해 마지 않았다. 그 후 10여일 만에 효종께서 붕어하였다.²²⁾

효종이 능력은 있으나 수명이 다하여 북벌은 끝내 수행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운명은 이밖에도 임경업에게서도 예견된 것이다. 즉 임경업이 未舉時에 만난 초부는 경업이 반쯤 올라갔다가 떨어질 운명을 알고 그에게 세상에 나가지 말 것을 종용하는 것이다.²³⁾ 이러한 예정의 결과 이밖에도 이완이나 박탁과 같은 충성스럽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초야

22) 「계서장록」 정명기본 21화. 吾觀主上天日之表 可謂英傑聖明之主 可以有爲 而但屍氣滿面 壽命盡於今年之內 天乎天乎 既出人 又何奪之遠也 哀痛不已 其後旬日之間 孝廟賓天

23) 「전집」 권2, 제4화.

에 숨어서 인생을 소모하고 만다.²⁴⁾ 이와 같이 북벌의 실패를 운명으로 설명하는 것은 조선 후기 집권 세력의 허위적 북벌론에 동조하여 당위적 논리를 전개한 사람들이 현실에서 북벌론이 좌절되는 것을 보면서 갖는 일종의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IV. 結 論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계서계〉에서 왜란은 운명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집권층의 일종의 자기합리화다. 그렇기 때문에 비범한 능력을 가진 인물들도 겨우 식구의 안녕이나 살고 있는 고장이 병화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는 정도 밖에 하지 못한다.

왜란을 물리치는 데 있어서 가장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는 인물은 이여송이다. 그는 탁월한 능력과 의리와 관대함을 갖춘 명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듬없는 백성들의 이야기에서는 이와 달리 임란으로 야기되는 사대의식의 폐해에 대하여 인식하고 이를 경계하는 이야기들이 나타난다. 이것은 특히 사대부들이 승양해 마지 않았던 이여송을 경계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호란은 왜란과 달리 발생을 운명적으로 보지는 않는다. 오히려 박엽과 같은 유능한 장수를 죽이지 않았다면 예방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는 아쉬움도 나타나고 있다. 〈계서계〉에서 박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수록해 놓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아쉬움의 표출로 보인다.

난 후 조선에서는 춘추대의를 밝힌다는 명분을 들고 북벌론을 펴는데, 그러나 이것은 이미 주장자들로부터도 실패가 예견된 것이었다. 이 실패는 다시 한번 운명론으로 포장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이것은 실패를 예견하면서 허위적으로 북벌론을 주장한 사람들의 자기기만에 지나지 않는다 할 것이다.

24) 「전집」 권4, 제3화.

이렇게 볼 때 <제서계>의 外觀에 대한 시각은 전체적으로 볼 때 퇴영적이라 할 것이다.